



마세라티가 브랜드 최초로 선보이는 전동화 모델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



고성능 라인업 '트로페오 컬렉션'. 왼쪽부터 기블리, 르반떼, 콰트로포르테.

마세라티 첫 전동화 모델 나왔다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 출시... 1억1450만원부터 차량 후면에 배터리 탑재 더 민첩한 주행 가능 트로페오 컬렉션·부분변경 모델도 선보여

이탈리안 하이퍼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의 첫 전동화 모델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가 국내에 상륙한다. 여기에 트로페오 컬렉션에 이어 마세라티 라인업 전반에 걸친 부분변경 모델이 새롭게 국내 공시 출시된다.

마세라티는 100년이 넘는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전동화 모델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기본형과 그란투소, 그란스포트 등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억1450만원부터 1억2150만원이다.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디젤보다 빠르고 가솔린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갖췄고, 브랜드 특유의 배기음을 간직한 마세라티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파워트레인은 2.0ℓ 4기통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제동 중 운동 에너지를 변환해 차량 뒤쪽 48V 배터리에 저장하며, 벨트 스타터 제너레이터(BSG)와 전동 컴프레서(eBooster)를 사용해 출발이나 가속 등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엔진을 지원한다.

최고출력 330마력, 2250rpm부터 45.9kg.m의

최대토크를 후륜에 전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하는 시간은 5.7초다. 이는 3.0ℓ V6 가솔린 엔진과 동등한 수준으로, 최고 속도는 255km/h로 기블리 디젤보다 5km/h 더 빠르다. 복합연비는 8.9km/ℓ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186g/km로 기블리 디젤보다 낮다.

운전의 즐거움도 놓치지 않았다. 차량 후면에 탑재된 배터리를 차량 중앙 배분이 향상돼 이전보다 더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마세라티의 설명이다. 또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특수 제작된 공명기를 활용해 브랜드 특유의 시그니처 배기음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외관은 마세라티 고유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은 프런트 펜더에 위치한 3개의 에어 벤트, C 필러의 로고와 브레이크 캘리퍼에서 마세라티 하이브리드를 표현하는 블루칼러 등이 더해졌다.

실내 역시 시트와 암레스트, 도어 패널, 대시보드에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표현하는 블루 액센트로 기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고해상도 10.1인치 커브드 터치스크린을 탑재했으며, 속도도 기존 대비 4배

향상됐다. 여기에 능동형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새롭게 도입해 주행 안전성도 높였다.

이밖에 마세라티는 트로페오 컬렉션도 선보인다.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기블리 트로페오, 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를 6750rpm에서 580마력, 최대 토크 74.44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3.8ℓ, 580마력 V8 엔진이 탑재됐다.

최고 속도는 326km/h, 각각 4.3초와 4.5초 만에 100km/h에 도달할 정도로 역대 마세라티 세단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2년 전 국내에 트로페오 버전의 차를 소개한 르반떼 트로페오도 최신 버전의 3.8리터 V8 엔진을 탑재하며 2021년형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최고 출력 580마력(6750rpm), 최대 토크 74.85kg.m의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는 마세라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중 가장 빠른 302km/h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1초다.

특히 마세라티는 전 차종 부분변경 모델 역시 새롭게 출시한다. 부분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기블리, 콰트로포르테, 르반떼에 일관된 정체성을 부여한 것으로, 튜닝포크 프런트 그릴과 마세라티의 자동차 3200 GT에서 영감을 받은 부메랑 형태의 테일 램프가 전 라인업에 공통 적용됐다.

인테리어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마세라티의 전 모델에 새롭게 장착된 'MIA'(Maserati Intelligent Assistant)를 비롯해 능동형 드라이빙 어시스트가 추가되는 등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기아 첫 전용전기차 EV6 본격 출시

기아가 전용전기차 EV 시리즈의 첫 모델 '더 기아(The Kia) EV6'를 2일 출시했다.

EV6는 사전예약 첫날 기아 승용 모델과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모델을 통틀어 역대 최대인 2만 1016대를 기록하고, 사전예약 기간 총 3만대가 넘는 예약대수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이끌었다.

이날 출시된 EV6는 신규 디자인 철학인 '오퍼핏 유나이티드'를 내·외장 디자인에 형상화했으며, GT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3.5초에 불과해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르다.

기아는 스탠드(기본형), 롱 레인지(항속형), GT-라인(Line) 모델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 EV6의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전계약 고객의 70%가 선택한 롱 레인지 모델에는 77.4kWh 배터리가 장착돼 1회 충전 시 산업부 인증 기준 최대 주행거리가 475km(2WD, 19인치 휠, 빌트인 캠 미적용 기준)에 달한다.

스탠드 모델의 경우 58.0kWh 배터리가 장착돼 370km(2WD 기준)의 최대 주행거리를 인정받았다.

EV6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영국 카본 트러스트사의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 내장 부품인 도어 맵 포켓과 바닥 매트 등에 차량 1대당

500ml 페트병 75개에 달하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800V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멀티 충전 시스템, 이동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개념의 V2L(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 등도 특징이다.

기아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주차 또는 충전 중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단 시스템도 탑재했다.

여기에 출시 후 1년간 전국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별도 예약 없이 원할 때 정비받는 'EV6 킷 케어 서비스' 등을 마련했으며, 기존에 영업용 전기차에만 제공됐던 고전압 배터리 보증 연장을 EV6 개인 고객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EV6의 판매 가격(친환경차 세제혜택 및 개별소비세 3.5% 반영 기준)은 스탠드 모델의 경우 에어(Air) 4730만원, 어스(Earth) 5155만원이고, 롱 레인지 모델의 경우 에어 5120만원, 어스 5595만원이다. GT-Line은 5680만원이다.

기아의 구독 서비스인 기아플렉스를 통해 월 구독료만 지불하면 EV6를 30일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아플렉스 이용 고객에게 무제한 충전카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3일 이내의 단기 대여 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현대차 아이오닉5 누가 많이 샀나

5700대 중 50대 이상 51.7% 차지... "내연기관차와 비슷"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최대 구매층은 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6월까지 출고된 5700대의 아이오닉 5를 구매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40대(27.6%), 60대 이상(20.6%), 30대(16.8%), 20대(3.8%) 순이었다고 1일 밝혔다. 50대 이상(51.7%)이 절반을 넘었다.

성별은 남성(7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에 익숙했던 고객들이 부담감 없이 아이오닉 5를 선택하면서 기존 자동차의 주요 소비부 구성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8%, 영남권이 28.4%로 나타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지역에서 높았다. 수도권에는 2만

9000여개, 영남권에는 1만9000여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구축돼 있다.

트립별 패키지 선택 비중을 보면 기본 트림인 익스플루시브 트림을 구매한 고객의 69.4%가 현대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충전,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야간 주행시 빛을 감지해 반사율을 낮춰주는 룸미러), 레인센서(비의 양을 감지해 와이퍼 작동 속도가 조절되는 기능) 등이 포함된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

벤츠 전동화 라인업 궁금하다면...

독일 뮌헨 IAA 모빌리티... 순수 전기차 5종 등 8종 선보일 예정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는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2021 IAA 모빌리티'(IAA MOBILITY 2021)에서 다양한 전동화 라인업을 공개한다.

이번 IAA 모빌리티에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전동화를 선도하다'(Lead in Electric)를 주제로,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메르세데스-EQ, 메르세데스-AMG,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등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순수 전기차 5종과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 1종을 포함한 총 8종의 신차를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벤츠는 전기 비즈니스 세단 'EQE'를 세계 최초

로 선보이며, 지난 4월 오토 상하이에서 공개된 실용적인 콤팩트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B'도 이번 모터쇼를 통해 유럽에서 첫 선을 보인다.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도 브랜드 최초의 럭셔리 전기 세단 '메르세데스-AMG EQS'를 공개하며, AMG의 테크놀로지 레이블 E-퍼포먼스에서 개발한 첫 번째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 E-퍼포먼스'도 세계 최초 공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협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협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보통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협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안로1번길20-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동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